

현 중2부터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내신 5등급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현행 문과수준의 수학 문제가 출제된다.

고교 내신은 예·체능과 과학탐구실험,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을 제외하고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 체제로 바뀐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은 교육부가 이미 발표한 시간대로 공통과목 중심의 '통합형' 체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국어와 수학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이고, 탐구영역도 사회·과학 17개 과목 가

'심화수학' 채택 않고 '대수·미적분 I'·'확률과 통계'로 축소 상위 10% 1등급·24% 2등급...수능 중요성 강화·보완 필요

운데 2개 과목을 택해 치르는 방식이다.

하지만 올해 중2 학생들부터는 자신이 선택한 영역에서 모두 같은 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

우선 '심화수학'이 도입되지 않아 수험생들은 진로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문항의 시험을 치른다.

현 수능 선택과목 '미적분'에 있던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은 수능 출제 범위에서 빠진다.

수학 출제 범위는 현재 공통과목인 '수학 I' '수학 II',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선택과목 없이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로 축소된다.

사회·과학탐구영역은 현 교육과정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출제범위다. 수험생은 사회와 과학에 모두 응시하게 된다.

고교 내신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를 5등급 상대평가제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현 중2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상위 10%는 1등급, 그 밑으로 24%는 2등급, 그 밑으로 32%는 3등급을 받게 된다.

다만 고등학교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 9개와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교양 과목은 절대평가만 실시한다.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과 융합 및 실생활과 연계한 탐구·문제해결 중심 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으로 학생들의 경쟁 부담도 줄기 때문에 수능 수학·사회·과학, 고교 내신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개편안에 대한 보완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우선 대학이 최상위권 변별을 위해 심화수학 과목의 '이과 수학'을 내신 점수나 면접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 정학당 담당자는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좁혀졌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서 수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며 "대학들

이 면접전형 등에서 수리능력을 요구하고 수능 등급컷을 상향할 수 있어 제도의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도 "일부 상위권 대학, 의대 등 이공계 학과에서 정시에서는 학교내신 심화수학 교과 관련 과목을 전형 자료로 반영하는 대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시에서도 면접, 논술 등을 통해 관련 이공계 학과들에서는 심화수학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이어 "대학들이 최상위권 대상으로 수시 논술이나 면접을 보거나, 정시에서 심화수학 관련 교과목의 내신 평가를 가미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기에 내신 과목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동구청~조선대 정문 도로 확장 중 27일 광주시 동구청 일대에서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1월까지 도로 인근 노후 건축물 177개동을 철거한 뒤, 동구가 동구청 별관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작업을 마치는대로 기존 왕복 4차로를 가변형 왕복 5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한파 한풀 꺾이니 미세먼지

30일 오전까지...오후 비로 해소될 듯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휩쓸고 간 광주·전남에 이번엔 미세먼지가 덮쳤다.

환경부 에어코리아 포털에 따르면 27일 광주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최대 87 $\mu\text{g}/\text{m}^3$,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75 $\mu\text{g}/\text{m}^3$ 까지 치솟았다.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는 순간적으로 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었으나, 오래 지속되지 않아 주의보가 발령되지는 않았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 150 $\mu\text{g}/\text{m}^3$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 75 $\mu\text{g}/\text{m}^3$ 이상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환경부는 28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미세먼지 81-150 $\mu\text{g}/\text{m}^3$, 초미세먼지 36-75 $\mu\text{g}/\text{m}^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오는 30일 오전까지 짙게 끼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려 해소될 것으로 예보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심장질환이나 폐 질환 등이 있는 이들은 건강에 유의하고 오랜 시간 무리한 실외활동은 자제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살인·강도·조폭 피해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27일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까지 확대 실시한다.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게도 검사가 재량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도 신설됐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재판부가 열람·등사 신청을 거절해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절할 때는 결정 결과와 이유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마약 혐의' 배우 이선균씨 숨진 채 발견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배우 이선균(48)씨가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이씨의 매니저로부터 '(이씨가)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관련 기사 17면>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 인근에서 이씨가 타고 나간 차량을

확인했다. 이씨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서는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도 나왔다.

지난 10월 마약 투약 의혹을 받던 이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10월 28일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많은 분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세 번째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마친 이씨는 "유형업소 실장이 숙여 약을 했다"고 주장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유형업소 실장 A(여·29)씨의 진술뿐이라는 입장이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 원을 뜯겼다"며 A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 사망에 따라 그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제2의 '오송 참사' 막기...광주 지하철도에 자동차단시설

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광산구 수원지하차도, 북구 월출지하차도에 각각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침수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철도 참사'를 겨울 삼야강·하천 인근에 있는 지하철도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설치 사업에는 각각 수만 6억, 월출 6억 등 총

12억원이 투입되며 차단시설 4개, 전광판 4개, CCTV 6개를 설치한다. 지하철도 내 수위계를 설치해 물이 30cm 이상 차오르면 자동으로 차단바를 내려 지하철도를 통제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광주시는 1~2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3월 착공해 우기가 오기 전인 5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